

## 금년도 에너지·자원기술개발에 3,671억원을 투입 키로

- 산자부, 2006년도 에너지·자원기술개발 통합 실행계획  
확정 -

산업자원부(장관 정세균)는 에너지·자원분야의 기술개발을 통합 시스템으로 운영하여 에너지기술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견인코자, 그 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온 에너지·자원분야 3개 기술개발사업에 대하여 금년도부터는 통합하여 지원키로 하고 총 3,671억원의 지원계획을 확정하였다.

금년도 지원규모(3,761억원)는 '05년도 대비(2,905억원) 26% 증액된 규모로 전력산업연구개발에 1,446억원,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에 1,245억원, 에너지·자원기술개발(이용효율 향상, 온실가스처리, 자원기술 등)에 980억원 등이 지원된다.

금년도 사업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력산업연구개발은 고부가가치 창출 및 수출촉진을 위해 시급한 분야의 전력기술 확대 및 기술력 확보에 집중 지원하게 되며,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은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 3대 분야는 미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대형과제에 집중하고, 바이오, 태양열 등 7개 일반분야는 기술성숙도 및 보급시장현황 등을 감안하여 차별화하여 지원되고 에너지·자원(효율향상, 온실가스처리, 자원기술)기술개발은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력 확보 등에 집중 지원된다.

한편, 에너지·자원기술개발을 종합적 혁신체계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번에 확정된 실행계획에서는 에너지기술정책의 목표를 그 동안 “에너지의 안정적/환경 친화적 공급”에서 “에너지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화”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적·정책적으로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에너지·자원분야의 융·복합화 핵심전략 원천기술을 미래 성장동력기술로 개발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략적으로 전환코자 금년도에

상세 기획을 추진키로 하였다.

또한, 앞으로는 “에너지·자원기술개발기본계획(‘06~‘15)”에서 제시하는 기술 로드맵(108개 기술분류)에 따라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 전자제품 살 때... ‘전기흡혈귀’ 잡는

☺ 마크 확인하세요(대기전력)

- TV·컴퓨터 등 전자제품 ‘대기전력 1W기준’

4월 17일부터 시행-

전자제품 살 때는 전기흡혈귀 잡는 에너지절약 마크를 확인하세요. ‘전기흡혈귀’란 실제 사용하지 않는 기기가 계속 전기를 빨아먹는다는 뜻에서 붙은 ‘대기전력’의 별칭. 전자제품을 실제 사용하지 않으면서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아 둬으로써 리모컨 신호대기 등으로 낭비되는 ‘대기전력’이 가구당 월 35,000원, 국가 전체로는 연간 5,000억원씩 낭비됨에 따라, 내년부터 13개 주요 전자제품 대기전력 기준이 1W로 강화된다.

산자부는 TV·컴퓨터·VTR·오디오 등 기존 11개 품목에 대해 대기전력과 오프모드 기준을 강화하고, 라디오카세트와 비데 등 2개 품목의 신규 지정 등을 골자로 하는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개정안을 17일 관보 게재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정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시판되는 제품 중 이 기준을 따르는 에너지절약형 제품에 한해 에너지절약마크를 붙일 수 있게 된다. 또 이번 개정규정에서는 기존 ‘자체시험기관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제조업체가 자발적으로 자체 시험한 시험성적서를 사용토록 함으로서 제조업체의 자체시험을 확대해 업체의 적극적 참여 유도과 에너지절약 제품 보급 촉진을 도모하고 있다.

산자부 김학도 에너지관리과장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연간 190억원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기대된다”며 “가전업계의 기술 개발 유도과 국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 대기전력 품목 확대 및 기준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호주에 이어 세계 3번째로 대기전력 1W 이하 달성 국가 로드맵 ‘Standby Korea 2010’을 발표하고 2010년 의무적 대기전력 1W정책시행을 선언하는 등 국제적 대기전력 저감운동을 선도하고 있다.

## 한전, 실시간 낙뢰정보 서비스 제공

- 실시간 낙뢰 감지 네트워크(KLD-Net) 구축 완료 -

한국전력(사장 한준호)은 4월 11일 전력계통의 송변전 설비 뿐만 아니라 일반 건축물이나 통신설비에 많은 피해를 가져다 주는 낙뢰를 실시간으로 관측할 수 있는 낙뢰감지 네트워크(KLD-Net, Kepco Lightning Detection & information Network)를 구축하고 낙뢰정보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이번에 새롭게 구축된 KLD-Net은 전국 8개소에 설치된 낙뢰감지 센서와 중앙분석장치를 통해 한반도 전역에서 발생하는 낙뢰를 실시간으로 관측, 인터넷으로 각종 통계지표를 제공해주는 시스템이다.

인터넷 접속은 <http://www.lightning.or.kr> 또는 한전 전력연구원의웹서버(<http://kldnet.kepri.re.kr>)를 이용하면 낙뢰 다발 지역 및 낙뢰의 세기 등의 발생 통계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향후 실시간 낙뢰발생 현황 등과 같은 정보가 필요한 특정사업자 및 일반인에 대해서는 한전의 서비스 등급 기준에 따라 유료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전은 이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낙뢰 발생정보를 전국에 위치한 한전 전력계통 운용 급전소에 제공함으로써,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 및 전력설비의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기상 및 재난분야, 통신 및 일반 건축물의 내뢰기준 분야 등에서도 폭넓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수원, 일본 R&I社 신용등급 1등급 상향 A+ 획득

- 실시간 낙뢰 감지 네트워크(KLD-Net) 구축 완료 -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이중재)은 4월 18일 일본의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인 R&I社로부터 외화 신용등급을 기존의 “A”에서 “A+”로 1등급 상향 조정 받았다.

R&I는 지난 4월 11일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을 “A+”로 상향하고, 그 후속조치로써 금번에 한국수력원자력의 신용등급을 국가등급과 동일하게 조정한 것이다. 이번 “A+” 등급 획득으로 향후 일본에서 한수원의 회사채 발행시 우수한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더욱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한수원은 작년에도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사와 S&P사로부터 각각 해외신용등급을 1등급씩 상향 획득한 바 있어,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의 연이은 신용등급 상향조정으로 탄탄한 재무구조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세계 최고수준의 발전회사임을 다시 한 번 공인받은 셈이다.

## 중부발전, Blue JB 설비운영/관리분야 워크숍 실시

한국중부발전(사장 정장섭)에서는 4월 18~19일 양일간에 걸쳐 충주시에 위치한 충주호 리조트에서 본사 Blue JB 담당직원 및 사업소 핵심사용자 약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Blue Ocean 구현을 위한 정보화시스템인 Blue JB 설비운영 및 설비관리분야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Blue JB 시스템 Open 이후 변화사항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사용법을 공유하며, 시스템 개선사항등에 대한 의견교환을 통하여 시스템 조기안정화와 고도화를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시행 하였다.

워크숍 첫째날 이정릉 경영혁신실장은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구축되어어도 구축된 시스템을 활용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회사의 업무를 One Stop으로 처리하며 적시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고 말하고, 이를 위해 "업무프로세스의 합리성 기반위에서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노력과 프로세스 근간이 되는 기준데이터의 정확성, 적기 활용성등을 위한 기준정보 및 데이터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최적의 설비운영 및 관리를 통한 일류발전회사를 만들자"고 역설하고 「이자리에 참석한 관련직원 및 핵심사용자 여러분이 최적의 설비운영을 통해 회사의 블루오션 창출에 앞장서 나가자」고 당부하였다.

이어서 외부강사 특강이 끝난 후 PI오원들이 「시스템 Open 이후 사용실적 분석과 효과적인 시스템 사용법 및 향후계획」등에 대한 발표를 하였다. 워크숍 둘째날에는 3개의 분임반으로 나누어 시스템 사용상 장·단점 및 애로사항, 개선요구 사항 등에 관한 주제를 놓고 Blue JB시스템을 시연하면서 시스템 개선의 적정성 및 합리적 구현방법등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토론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워크숍 일정을 마쳤다.

한편 이자리에서 개선된 의견은 향후 시스템 안정화 및 고도화를 위하여 귀중한 자료로 참고 할 예정이다.

## 동서발전, 울돌목 조류발전건설 MOU 체결

-전남도, 진도군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내용의 투자양해각서 체결 -

에너지문제가 세계 각국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서남해안에 친환경적 해양에너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公企業)이 있어 화제다. 한국동서발전(주)(사장 이용오)가 그 주인공. 동서발전은 지난 21일 전라남도 도청 회의실에서 이용오 사장과 박준영 전라남도 지사, 김경부 진도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동서발전이 계획중인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에 적극 협력키로 하는 내용의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 체결에 따라 동서발전은 울돌목, 장죽수도, 맹골수도 조류(潮流)발전시설 개발을 비롯해 전남도내 태양광,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본격화 할 계획이다. 동서발전은 지난해 7월 산업자원부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참여 협약(RPA)시 밝힌 바와 같이 2008년까지 3년간 약 2,460억원을 투자하고 본격적인 친환경 에너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조류발전은 동서발전이 중점적으로 개발 중인 신재생에너지로 밀물과 썰물때 수로를 따라 흐르는 빠른 물살을 이용, 수차를 돌려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매우 친환경적 발전방식으로 각광받고 있다. 조류발전설비 건설사업은 현재 2007년 초 완공을 목표로 전남 진도군과 인접한 울돌목에 세계 최대규모의 1MW급 시험용 발전소를 한국해양연구원과 공동으로 건설중이다. 동서발전은 시험발전소 준공이후 발전소 운영과 성능개선을 실시하고 타당성 검토를 거쳐 울돌목 등 3개 지역에 약 45만kW 상업용 조류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류발전소 건설과 운영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촉진과 관련법(「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 또, 진도군에서 추진중인 해양에너지공원과 더불어 관광자원화 및 학생들에게 미래 환경과 첨단과학의 중

요성을 일깨워주는 교육시설로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이번 투자양해각서 체결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큰 전환점을 마련함은 물론 회사의 미래 성장동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2010년 경 울돌목 조류발전소가 준공되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급도 제고는 물론 미래 에너지 개발에 대한 선도적 역할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서발전은 울돌목 등 조류발전사업 이외에도 당진 해양소수력, 동해 태양광, 울산 가스화발전(IGCC : 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 서부발전, 혁신리더 워크숍, “3가지 혁신습관(안)” 채택

- “업무는 고객관점, 보고는 계량화, 칭찬은 내가 먼저”

서부발전(사장 김중신)은 4월 19일 “강한 혁신리더 만들기 워크숍”을 개최하고 혁신수준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하여 서부인이 갖추어야 할 혁신습관을 채택하였다. “업무는 고객관점”, “보고는 계량화”, “칭찬은 내가 먼저” 등 3가지를 혁신습관(안)으로 채택한 이번 워크숍에는 본사 및 사업소의 혁신리더 33명과 경영혁신실 직원들이 참가했다.

김일천 관리본부장, 손동희 사업본부장과 함께 격려차 참석한 김중신 사장은 새로 임명된 리더에게 임명패를 일일이 수여하고 축하한 후 혁신 리더로 하여금 금년부터 가동되는 BSC와 상시혁신인프라를 활용하여 성과지향적 혁신활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촉진자 역할을 강조하였다. 특히 파레토 법칙을 예로 들며 33인의 혁신리더가 서부발전을 World best

Genco로 만들고자 하는 사장의 혁신의지를 현장에 실천하는 첨병이 되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지침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중기 비전인 모든 젊은이가 선호하는 존경받는 기업 구현을 위해 전략적으로 추진중인 Y-Project 2007 목표달성 의지를 다지는 행사로 이번이 3번째이다.

경영혁신실에서는 ‘서부의 경영혁신 수준을 최고로 유지하기 위하여 각 사업장의 혁신활동 방향을 전사전략에 정렬하고 올바른 실행을 하도록 함으로써 혁신활동의 성과를 높이는 한편, 불필요한 일을 줄이고 혁신피로와 저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혁신리더들의 역량을 배양하는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였다.

삼성경제연구소 배영일 수석연구원의 “6시그마의 현재와 미래”와 권재성 경영혁신실장의 “2006년 경영혁신 현황과 변화 관리” 특강은 경영혁신 방향에 대한 이해와 서부발전 경영혁신의 기본Tool인 6시그마와 타 혁신활동(BSC, TPM, 경영계획과 경영방침 등)과는 어떻게 연계하고 통합하여야 하는지, 6시그마의 미래발전 방향에 대해 혁신리더들이 한번 더 생각하도록 하였다.

혁신리더들은 본사 주관부서중심으로 작성한 27개 혁신항목 추진계획과 처(실), 사업소별로 작성한 혁신전략 및 실행계획의 발표하고 총체적 혁신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사의 혁신전략과 Alignment된 계획 수립방안을 토론했다.

경영혁신실은 사업장별 혁신전략과 실행계획은 비탕으로 5월초에 시장과 처·실장간 혁신성과이행 협약을 함으로써 실행력을 높이고 연말에는 자체개발한 혁신평가지수(WIX)를 활용하여 평가할 계획이다.

## 남부발전-중소기업 함께하는 ESCO 사업

한국남부발전(주)(사장 김상갑)은 ESCO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지난 4월 13일 아시아에너지(주)와 신재생에너지분야 사업개발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ESCO(Energy Service Company;에너지절약전문기업)사업은 제3의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기존 에너지시설의 보관을 기술적, 경제적 부담으로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대신 투자하여 효율적으로 에너지절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번 양사간의 양해각서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남 물재생센터"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공동개발 하기 위한 것으로 南電과 중소기업이 함께 ESCO사업에 첫 발을 내딛는 의미있는 행사이다.

사업개발 대상인 서남 물재생센터는 서울시의 4개 하수처리장중 강서구에 위치한 하수처리장으로서 생활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메탄)를 활용하여 발전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사업분야로 평가된다.

2005년 11월에 ESCO사업자로 등록된 바 있는 南電은 최근 고유가와 기후변화협약 등 에너지사업 환경변화와 함께 에너지시장의 블루오션으로 각광받는 투자사업인 ESCO사업을 내부 역량 강화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은 물론 중소기업 지원사업과도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다.

## 현대중공업, 2006 하노버 박람회 참가

현대중공업(사장 최길선)은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독일 하노버에서 개최되는 "2006 하노버 박람회 (HANNOVER MESSE 2006)" 에 참가했다.

이번 전시회에서 전전시스템은 중저압차단기, 인버터 제품 및 그래픽을 전시하며 주요 전시품인 중저압차단기를 3D로 제작한 동영상을 홍보영화와 함께 상영했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전시회를 통하여 유럽지역에서의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세계 일류 기술동향을 파악할 예정이다.

## 두산중공업, 생산현장 직원 등반대회

- 노조 간부 및 현장 근로자 400여명과 김해 신어산에서

두산중공업 이남두 사장이 취임 50여일 만인 지난 주말 일부 노조 간부 및 생산현장 근로자 400여명과 함께 경남 김해시 신어산에서 노사 상생을 위한 한마당 행사에 참가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남두 사장 등 회사 임원 10여명과 박종욱 금속노조 두산중공업지회장을 비롯한 노조간부, 생산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등 400여명이 참가했다.

지난 3월초 취임 이후 현장 근로자들과 처음으로 야외행사를 가진 이 사장은 "기업가치와 고객만족 등 모든 것이 생산현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현장에 무게 중심을 둔 철저한 현장 중심의 경영을 펴겠다"며, "현장 중심 경영을 실현할 주역인 현장 근로자들과 함께 화합과 상생의 노사관계를 이루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두산중공업 생산현장 직원들은 지난 2003부터 매년 회사 경영진과 함께 참여하는 등반대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 포스코, 포스코파워 지분 전량 인수

포스코는 21일 코리아전력투자(KPIC)로부터 한국에너지투자(KETL) 지분을 인수하기로 계약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한국에너지투자가 갖고 있는 포스코파워 지분도 전량 보유하게 돼 앞으로 발전소 증설 등 성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조인식에는 KPIC 방승규 대표이사와 장현식 전무가 참석해 계약서에 서명했다.

포스코는 24일 한국에너지투자에 대한 인수대금 지급 및 주식 인수를 거쳐 거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국에너지투자는 포스코파워 지분의 50%를 보유하고 있어, 이번 계약을 통해 포스코는 포스코파워 지분을 현재 50%에서 100%로 확대함으로써 포스코파워의 지분을 전량 확보하게 됐다.

포스코와 KPIC는 지난해 7월 한국종합에너지(현재 포스코파워)의 지분 50%씩을 한화와 엘 파소(El Paso)로부터 각각 인수하고 공동 대표이사를 선임해 경영해 왔으며 지난 10월에 사명을 한국종합에너지에서 포스코파워로 변경했다.

포스코는 이번 포스코파워의 지분 인수를 통해 지난 1월 산업자원부에 제출한 2000MW 규모의 발전소 증설 프로젝트를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포스코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사업 인프라인 'LNG터미널' 등에 포스코파워의 1800MW 상업용 발전기와 수도권에 위치한 지리적 우수성을 연계함으로써, 앞으로 에너지 분야에서 성장발판을 공고히 할 방침이다.

이번에 포스코가 지분 100%를 인수한 포스코파워는 1800MW의 발전설비를 갖춘 국내 최대의 민자 발전회사로, 액화천연가스를 주연료로 사용하는 4기의 복합화력 발전설비를 갖추고 있다.

## LS전선 가스히트펌프(GHP), 국내 첫 NEP 인증 획득

- 국내 최초로 개발된 신제품에 부여하는 인증
- 이번 인증 획득으로 관급공사 시 우선 구매품목 적용

지난해 처음으로 국산화에 성공한 LS전선(사장 구자열)의 가스히트펌프(GHP / Gas Heat Pump)가 최근 산업자원부로부터 국내 최초의 신제품 인증(NEP / New Excellent Product)을 획득하였다.

NEP 인증제도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적용 신제품 중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에 부여되는 인증 마크이며, LS전선의 가스히트펌프(GHP)는 서류에서 종합심사에 이르는 5단계의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통과함으로써 국내 NEP 1호 제품으로 기록됐다.

그 동안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부처별로 시행에 오던 KT(Korea Good Technology), NT(New Technology), ET(Environment Technology) 등 총 7개의 신기술 인증제도가 올해부터 NEP와 신기술 인증(NET / New Excellent Technology) 마크로 통합하여 운영되고 있다.

NEP 인증을 받은 신제품은 각종 관급 공사 등의 공공 조달 품목 입찰 시에 우선 구매 대상으로 적용 받게 돼, 앞으로 가스히트펌프(GHP) 매출신장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LS 전선의 가스히트펌프(GHP)는 청정 연료인 LNG 도시 가스를 사용하여 냉매를 압축 시킨 후 각종 사무실, 빌딩 등의 냉난방 시스템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여름에는 냉방기로 겨울에는 난방기로 활용이 가능하다.

## LS산전, RoHS 대응 친환경경영 선언

오는 7월 유럽연합(EU)의 전기전자 제품 유해물질사용제한 (RoHS) 발효를 앞두고 LS산전(대표 : 金正萬 www.lsis.biz)이 3일 RoHS 규제에 대응하는 친환경경영을 선언, 4월부터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는 제품을 본격 생산한다고 밝혔다.

유해물질사용제한(RoHS) 지침은 교류 1000V, 직류 1500V 미만에 사용하는 전기, 전자 제품을 10개군의 카테고리별로 분류하여 이에 해당하는 제품은 납(Pb), 수은(Hg), 카드뮴(Cd) 등 6가지 유해물질의 함유량을 규제하는 내용이다.

LS산전은 RoHS 규제에 대비, 지난 해 3월부터 '친환경 그린 구매정책'을 선언하고 350여 협력회사들과 유해물질이 함유된 부품과 원재료의 생산 및 거래를 일절 하지 않는 약정을 체결함은 물론, 납(Pb)이 사용되지 않은 생산라인 투자와 유해물질 분석을 위한 검사설비 투자, 관리표준의 제·개정을 통해 개발단계부터 유해물질 함유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LS산전 관계자는 "LS산전 제품은 RoHS 지침에 간접적으로 해당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친환경경영이 기업의 생존전략의 주요 경영 키워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공인 화학시험 연구원에 의뢰하여 4만 2,000여 종의 부품에 대해 유해물질 함유여부를 검증한 후 유해물질이 초과된 부품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원재료 변경 등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LS산전은 PLM(Product Lifecycle Management; 제품수명주기 관리)시스템 투자를 통해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관리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며 올해내 중국의 무석 생산법인에도 RoHS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 참고 - PLM시스템 : 개발 및 생산중인 제품정보의 생성에서부터 폐기까지의 모든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

